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종합에너지 그룹으로 성장

머릿글 삼성 SDI 상담역 손욱

1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법무부 장관 천정배

커버스토리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나의 경영이야기 동국산업(주) 사장 정문호

리더십이야기

세상을 보는 눈 심대들의 쪽지 발행인 김형모

회원&연구원소식 / CLUB 風流

LMI & HOTEL LOTTE

지자체특강 국립암센터 원장 박재갑

발행인편지 / 조순칼럼

표지인물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1

2006 January

등록번호 [매체]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6년 1월 1일 발행인: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I) 주소: 138-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8 3500(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주)동양인쇄 T: 462 6323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의 힘찬 바람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 그 희망은 어디있는가?
농산물 유통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농협유통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 1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농협유통 -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과 첨단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로클럽 · 하나로마트 · 외식사업센터 · 하나로주유소 · 전통공예품 전문점]



혁신 성공의 열쇠 "변화관리"

손욱 삼성SDI 상담역

“변해야 산다.”

"변한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더 빠르게 변해야 살 수 있다."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변화와 혁신 역량이 기업의 생존 경쟁력을 좌우하고 개인의 삶의 질과 격차를 결정한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주 요인이 되는 것이다.

왜 모두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많은 기업과 조직이 혁신을 추진 하는데 성공하는 사례를 찾기 힘든 것일까? 혁신을 시작하는 기업 100개 가운데 20개 정도만이 실행에 성공하고, 실행에 성공한 기업 100개 가운데 20개 정도가 올바른 성과를 창출한다고 한다. 혁신 성공 확률이 4%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면, 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

혁신의 성공요소는 크게 변화관리와 혁신도구(방법론)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도 80:20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은 변화관리를 80의 비중으로 중시하고 혁신도구를 20의 비중으로 생각하는데, 혁신에 실패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변화관리를 20의 비중으로 생각하고 혁신도구를 80의 비중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필자가 삼성SDI에서 Big Bang식 프로세스혁신(PD), 전자적자원관리(ERP) 도입과 6시그마 경영품질혁신을 동시에 도입 추진할 당시, 많은 컨설턴트 가운데 가장 비싼 비용을 요구한 것이 변화관리 전문가였다. 프로젝트 총괄책임자보다 더 높은 일당을 요구하여 놀라게 했고 그나마 모셔 오기가 쉽지 않았다. 변화관리의 가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뜻한다.

혁신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변화에 대한 내부저항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변화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혁신이란 말 그대로 기존의 일, 일하는 방법, 사고방식 등 모든 것을 일시에 가축을 벗기듯 벗겨내고 새로운 가축으로 만들어 가는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조직원 모두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공감하여 필사즉생의 의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은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동질적인 문화로 좁은 땅위에서 살다보니 모든 것은 이심전심으로 저절로 뜻이 통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의 오랜 정치구조와 양반과 상민의 계급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오며 위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는 타

율의 문화에 군사문화까지 겹쳐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민주화 이후 국가적 과제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인다. 사업구조문제는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의 문제는 프로세스혁신으로, 경영품질의 문제는 6시그마를 도입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톱이 결정하여 추진만 하면 성과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6시그마 경영품질혁신을 보면 초기의 3, 4년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던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체질변화로 이어가지 못하여 성과창출에 고민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모두가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일체유심조라 한다. 혁신의 성공은 변화관리에 달려있고 이 역시 사람에게 달려있으므로 마음을 뿌리째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조직원이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며, 얼마나 시급한지 위기의식을 공감하여 '나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 열정을 가지고 지혜와 힘을 모으고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일이 바로 변화관리의 요체이며 혁신성공의 핵심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변화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다는 즉, 변화관리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변화관리의 요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화관리 즉, 한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 기업과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신뢰, 혁신이 성공할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는 신뢰, 성공의 결실을 다함께 올바르게 나눌 것이라는 신뢰 등 투명하게 마음을 열고 벽을 허물기 위하여 신뢰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새해는 병술년, 개의 해이다. 개는 충견(忠犬), 의견(義犬)으로 표현되듯 신뢰의 상징이다. 충견, 의견의 특징은 주인과의 사이에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새해에는 모두 변화관리의 참 뜻을 실천에 옮겨, 추진하는 혁신마다 멋진 성과를 이루어 희망찬 기업의 미래를 이루어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人間



손욱 상담역 1945년 생 /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 세종대 명예기술경영학 박사 / 삼성전(주) 기획조정실장, 마케팅실장 / 삼성전(주) 상무이사, 종합연구소장 /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경영관리팀장 전무이사 / 삼성전(주)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 삼성SDI 사장 /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 한국산업기술사학회 부회장 / 테라극 노노소자 개발사업단 이사장 /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1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美 펜실베이니아대 전기공학 · 경영학 박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조교수 / 美 미시간대 조교수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獨 홀트재단 연구교수 / 한양대 석좌교수
<상훈> 서울대 총장상, 제21회 정진기언문문화 대상, 근정포장
<저서> 경영학적 사고의 틀, 프린시피아 매네지먼트, 계량적 세계관과 사고체계, 경영학의 진리체계, 경영 경제 인생 강좌 45편 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美 예일대 러시아학 · 동유럽학과 졸업 / 美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 77년 미 국무부 입성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국 부상주대표 · 미국 대표부 부대사 / 국무부 유럽 · 캐나다 담당 수석 차관보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유럽담당 선임국장 / NATO 대사 / 주 러시아 미국대사
<수상> 국무부 우수외교관상, 미국 변호사협회 올해의 대사상

<신년하례회>

세월속에 생각하는 인생과 기업

1434회 1월 5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일반적으로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30년 이상 되면 성장기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조직규모로 인해 오히려 위기를 맞기 때문이다. 여기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기술변화의 가속화가 기업의 조직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간단하지만 지혜로운 경영철학이 있다. 윤석철 교수가 1991년 출간한 <프린시피아 매네지멘타>에서 제시한 '생존부등식' 이론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그 역할수행에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커야 하며, 시장가격보다는 고객이 느끼고 만족하는 가치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윤 교수는 지난 9월 정년퇴임 기념강연에서 앞이 지고도 굳건한 가치를 지닌 나무처럼 기업이나 개인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기대지 말고 자기 고유의 힘 즉, '발가벗은 힘(naked strength)'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신년하례회 연구회에서는 한국 경영학계의 거목이자 '한국의 피터 드러커'로 불리는 윤석철 교수를 초빙하여 인생과 기업에 있어 경영기법보다는 기업경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부시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의 미래 - 6자회담과 북미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1435회 1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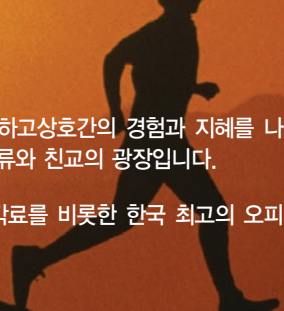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는 물론 위조지폐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며 다각도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향후 대화의 길이 막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태도는 9.11테러 이후 '악의 축'으로 명명된 나라들과의 반 테러전쟁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의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국가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라크와 달리 비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개월 여째 공석이던 주한 미 대사에 버시바우 대사가 취임하면서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규정해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로서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재 상황을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관계와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현명한 중재자로서 나서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직전 주 러시아 대사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유럽안보문제 전문가이자 역대 주한 대사 중 가장 거물급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를 초빙하여 6자회담과 북미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국 LG전자 사장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 美 스탠포드대 전자공학 석사 / 美 스탠포드대 전자공학 박사 / 美 휴렛팩커드 근무 / 금성반도체 본부장, 이사 / LG전자 연구소 총괄(부사장) / LG전자 전자기술원장(부사장) / LG전자 사장 /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 / LG전자 CTO(사장)
 <상훈> 은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경영전략

1436회 1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전세계 정부 및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는 다보스 포럼을 주최해온 세계경제포럼(WEF)이 2005년 실시한 다국적 리더들의 의견조사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2006년 IT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선정되었다. 올 한 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야 할 대표적 현상으로 디지털 컨버전스가 지목된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하나의 기기나 서비스에 모든 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은 크게 유선과 무선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우리 삶의 방식과 질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인 만큼 시대적 각축에 뒤지지 않기 위한 기술 선점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일, 급변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앞서가는 일은 결코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업간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년 넘게 LG전자에 몸담고 있는 이희국 사장을 초빙하여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인 디지털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용섭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전남대 무역학과 졸업 / 美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부이사관 /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 재정경제부 감사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심의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세제총괄심의관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 제20대 관세청 청장 / 제14대 국세청 청장
 <상훈> 녹조근정훈장
 <저서> 국제조세

정부혁신의 방향과 성과

1437회 1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정부혁신은 참여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로 노무현 대통령은 늘 정부혁신을 강조한다. 지난 5월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도 '정부혁신의 목표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개혁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는 소수전문가의 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주로 정부기구와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정도였다. 이에 비해 지금의 정부혁신은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정부조직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29위로 평가했고, 유엔이 지난해 발표한 전자정부지수는 세계 5위로 전년보다 8단계나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혁신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혁신의 평가잣대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참여정부 최초의 국세청장으로 발탁되어 개혁대상이던 국세청을 단기간에 혁신 선도기관으로 탈바꿈시켰던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을 초빙하여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방향과 성과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제143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2월 8일(목)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지난 12월 3일은 우리가 IMF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우리경제는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체질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경제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비효율을 가져왔다.

그러다가 최근 우리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직도 IMF위기를 불러왔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요인이 되는 취약하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몇몇 거대기업은 시장감독기구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힘이 센 것도 사실이다. 노사관계도 후진적으로 남아있다. IMF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시장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고 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동안 우리가 치른 값진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시장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의 노력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문화적 제도적 조건

시장경제가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판가름이 났다. 후쿠야마도 말했듯이 자유민주주의와 그 경제원리인 시장경제는 체제경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시장경제는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킨 것은 아니다. 또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킨 나라들 간에도 그 조건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형태와 발전정도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학자들이 이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막스 베버는 종교와 같은 문화적 전통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와 정직, 근면과 같은 직업윤리가 자본주의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듯이 시장경제원리는 모든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후쿠야마는 다른 저서에서 사회도덕과 신뢰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는 강한 공동체적 연대를 지닌 사회는 고신뢰사회이며, 공동체적 연대가 무너진 사회는 저신뢰사회라고 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직업윤리,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 등이 시장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문화적, 제도적 조건들이다. 우리는 그 동안 성장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엄청난 희생에 힘입어 교육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기술적 역량이 축적되고 우리사회의 직업윤리가 발전되었다. 또한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국민적 희생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후쿠야마에 따르면 한국은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사회적 신뢰관계보다는 가족주의적 문화가 지배하는 저신뢰사회이다. 그의 지적처럼 상대적으로 우리사회에 부족한 것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까?

신뢰형성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과 그 과제

내가 관망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신뢰형성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달리 말하면 법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이전까지 우리나라 시장경제는 겉모습은 시장경제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시장경제에서 벗어난 측면이 매우 많았다. 우리가 선진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바로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여러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경제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독과점 기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과점 규제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엄하게 집행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세기부터 셔먼법(Sherman Act)이 있었고 1947년에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기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권한을 갖고 또 그것을 행사해 왔다.

둘째,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시장감독기구와 사법당국이 공정경쟁을 해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의 금융전문가 마이크 밀켄에 대해서 미 연방검찰은 불법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먼데이'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수사를 반대하는 여론도 거셴지만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라 밀켄을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평생 금융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건과 함께 징역 10년에 벌금 6억 달러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90년대에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뢰의 토대를 구축했다.

셋째, 시장참여자들의 계임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이 법 자체와 그 집행의 공정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반칙이 난무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공정한 심판은 산술적 균형을 취하는 심판이 아니다.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 질서를 해칠 때는 강력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

법무부 장관에 부임했을 당시 이미 법무부에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꼭 드는 비전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검찰권을 엄정하고 적절히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반칙을 통해서 특권을 향유하는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대해 우리 검찰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이를 차단코자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요즘 민생법무부라는 말을 매일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민생사범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검찰은 공단활동을 통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서민들도 영가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인파산자들 중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개인파산자들의 신용회복을 도와 한 때 400만명에 이르렀던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더 나아가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파산자들의 결격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극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몇 가지 직업을 빼고는 전면적으로 파산자들에 대한 결격요건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급받아 체류하게 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인권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중소기업에 있어서 적기에 노동인력을 원활히 공급하는 일이기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적은 다르지만 중국이나 구 소련지역에 사는 재외동포들이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고도 좀 더 자유롭게 국내에 들어와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방문 취업제'라 하여 우선 입국한 뒤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노동시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대대적으로 터 줄 생각이다.

그 밖에도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을 올해의 중점 정책 과정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법과 상법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고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회사법 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전자헌법이 시행되어 실제 최근에 전자어음 발행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정부 법무공단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로펌



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단체 특히, 중소기업 등이 국제통상법과 같은 법률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생정치, 민생행정을 실현하는 것

우리사회는 식민지과정에서 근대적인 법체제가 도입되었고 오랫동안 군사 독재를 거쳐 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이란 말은 친근감과 거리가 먼 탄압이나 규제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법의 지배란 정치나 행정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짐을 뜻한다. 법의 지배대상에는 물론 국민들도 포함되지만 가장 법의 지배대상으로 꼽아야 될 대상은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이다.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법의 우위를 통해서 일반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겠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이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본권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기본권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치주의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로부터 국민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측면을 강조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거꾸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복지나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어제 국정원에서 과거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국가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부당하게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성과로 이 부분은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제 우리의 중점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데 있다. 이것은 곧 민생개혁정치와 동의어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곧 민생정치, 민생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상징성만 남아

강 교수 불구속 지휘는 구속과 처벌 분리하자는 메시지

지금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중요한 과제이다. 인권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도 잔존하는 문제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문제이다. 이것은 적어도 국제기준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으로 큰 장애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현재 상징성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7명 있는데 5명은 기결수로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2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이다. 그 5명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그 어떤 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범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지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내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지휘한 것은 우리 형사사법에서 구속과 처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에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형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나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이 단순히 교과서에만 있는 공허한 구호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회가 아직 법치주의의 발달이 덜 된 것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행형법을 제대로 고치려고 한다. 행형법이라 함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행형법이 100조 가량 되었다. 그 중 마지막 조문에는 '이상의 각 조문은 미결수에게도 준행한다' 라는 말이 있다. 엄청난 이야기이다. 미결수라 함은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행형법에서는 모든 규정들을 미결수에게도 그대로 준행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원리에 극히 어긋나는 조문이기에 고쳤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구속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유죄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확률적으로 보면 구속된 사람들의 99%가 유죄판결을 받는다.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른다. 사건이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 쪽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써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

는 유죄추정의 원리를 써 피고한테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오랜 법관생활을 하신 분께 들었다. 사람들은 일단 기소되고 구속되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구속되거나 불기소되면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구속은 처벌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불구속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해서 법원도 적당히 풀어 주어서는 안 된다. 처벌 자체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이고 그것을 제대로 공소 유지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할 때 강 교수의 사건은 전형적으로 불구속 처리해야 할 사건이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일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명을 전제로 첫째, 주거부정 둘째, 도망할 우려 셋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강 교수의 경우,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증거라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 자체가 증거였고 그것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남아있었기에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었다. 그래서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옳겠다고 구두로 지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끝까지 견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서면지휘를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강 교수가 아닌 그 누구였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없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불구속 지휘는 모든 국민의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적절한 사건이었다고 본다. 이를 두고 여기에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정치인인지라 내 수사지휘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계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내게 유리할 것은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내가 법무부 장관에 있는 한 직무에 관련된 한도 내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와 그에 상응하는 나의 양심상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음을 말씀드린다.

시장개혁과 법치주의 구현은 지속될 것

앞서 법치주의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신장이 사실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화되어 가는 빈부격차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신뢰형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법치주의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들에게는 단호한 대처를 뜻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제주체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시장개혁과 법치주의 구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나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人間**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종합에너지 그룹으로 성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 오경근 원장

"한전 사장에 취임한 이후 윤리경영을 최우선 경영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2015년에는 세계 100대 기업에 진입하는 최고의 글로벌 종합에너지 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전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반면 그 동안 공기업의 무사안일주의와 비효율적·비능률적인 조직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룡에 비유되곤 했다. 2만여명의 직원 수와 거대 자산 규모가 재벌기업 못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3월 한준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전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이 전사적으로 퍼지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중요시했다. 이는 국내 전력사업을 위주로 하는 전력회사에서 벗어나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전은 05년도에 정부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7년 연속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연공서열을 탈피한 인사혁신을 단행하고 전직원이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한준호 한전 사장을 만나 한전의 변화와 세계화 전략, 그리고 35년간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한준호 사장 1945년 생 / 서울대 법과대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경희대 행정학 박사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상공부 행정사무관 /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석유가스국장 /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기획관리실장 / 중소기업청장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한국전력의 역할과 함께 주요 사업분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지난 40여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전은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력판매량 증대와 효율적인 수익성 개선,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렸어요. 또한 한전은 현재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연계하여 개성공단 등 대북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은 세계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를 다각화하고 상품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무사 안일주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장님 취임 후 '한전이라는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이 극대화되고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임 후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2004년 3월, 사장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전력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종합에너지 그룹으로 거듭나고, 2015년에는 세계 100대 기업에 진입한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제가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와 연찬회 등을 통해 생산적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벽 허물기를 통한 조직 시너지 제고 및 열린경영을 통한 사내외 의사소통 활성화로 공감대 확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 서비스, 성장동력의 4대 부문 혁신에 주력하며 변화기조를 정착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경영혁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혁신노력을 추진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주관 공기업 청렴도 측정결과 04년도 공직 유관단체 4위 및 05년도 투자기관 2위를 달성하였으며, 무디스로부터 국가보다 높은 신용등급(A2)을 획득하기도 했죠. 또한 04년도 정부경영평가 1위, 05년도 국가생산성 대상 종합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05년도에는 정부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7년 연속 1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한전이 올해 공기업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취약했던 윤리경영이 빠르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취임 이후 윤리경영을 최우선 경영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부패방지위원회와 공기업 윤리확립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전력그룹사 사장단 공동으로 윤리경영 추진 CEO결의문에 서명하는 등 대외적으로 윤리경영 의지를 밝히고 전력그룹 차원에서 강도 높게 실천했습니다. 부패방지팀 신설, 최고경영자에게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핫라인 시스템, 청렴계약제 실시, 300만원 이상의 구매·공사계약은 전자공개입찰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와 함께 개개인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직원 옐로카드제, 신입사원 윤리 후견인

제, 법인카드 용도를 제한하는 클린카드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패방지위원회가 3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향상률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57년만에 남한의 전기가 북한 개성공단에 공급되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대북 송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3월 16일은 분단 57년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전력이 군사분계선을 거쳐 북녘땅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 전력공급은 남북 상생의 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조업 활성화로 공단 분위기가 크게 고무되었죠.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13개 입주업체 및 관리기관, 기타 건설현장 등에 배전선로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본 단지 100만평에는 154kV 송전선로로 7~10만kW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측 선로경과지에 대한 측량을 끝냈고, 현재 정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전은 중국과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전력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한전의 해외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죠.

한전에서는 세계전력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필리핀 말라야사업을 발판으로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한 한전은 02년 6월에는 필리핀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를 준공·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세부에 화력발전소를 착공함으로써 해외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04년 10월 열병합발전소 착공을 계기로 중국 전력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풍력발전소를 착공하였고, 석탄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을 추가로 개발하는 중이죠. 최근에는 리비아 배전계통 성능개선 기술용역, 우크라이나 배전 손실감소 기술용역 및 리비아 전력통신망 설계용역 등을 수주하였으며, 미얀마 500kV 송전선로 건설, 중국 및 필리핀 배전자동화사업, 전력IT 등 전



▶ 2005년 12월 필리핀 세부발전소 착공식

력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원전사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이 예상되는 분야로 한전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전력그룹사와 국내 관계 업체들과 협력하여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발전사업과 더불어 송전, 배전, 통신 등 비교우위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보유기술을 수출하는 해외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개발하고 있는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한전은 화석연료 고갈 및 지구환경 보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에 약 5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2012년까지 한전과 발전회사 공동으로 약 3,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대 중점사업인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현재 연료전지 및 태양광 분야는 실증시험 단계이고 풍력발전은 제주도에서 이미 상업운전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의 기술개발 현황을 보면 태양광 분야는 내년까지 실용보급을 위한 기술도태를 확립한다는 목표 하에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이미 실용화하여 기술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120kW급 계통연계 태양광발전시스템도 국내 제작업체들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8월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죠. 또한 MW급 집중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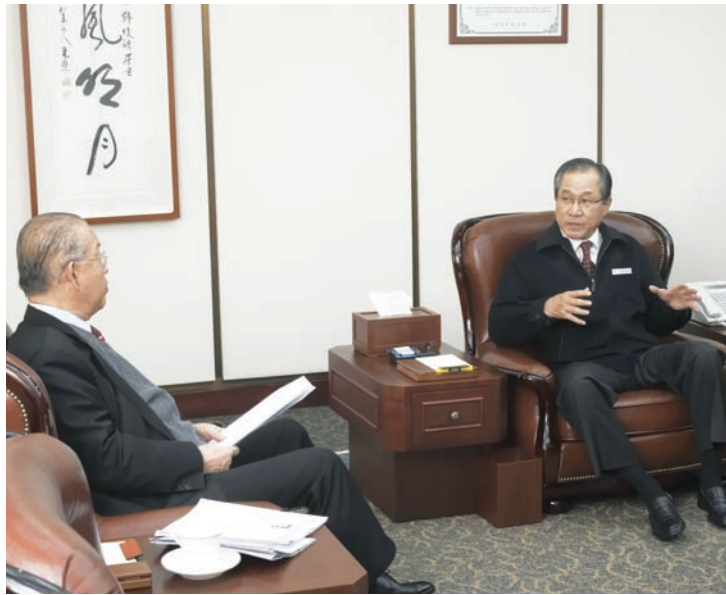
사장님께서서는 중소기업 분야에 몸담은 경력 때문이신 지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어요. 과거 중소기업 분야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죠.

04년도 기준으로 한전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16,000개입니다. 한전은 이들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정보화 기술개발 지원, 품질인증 획득비용 지원, 수출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유망 전력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적재산권 출원 비용 보조 등에 28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구매를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04년도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74.8% 수준까지 확대했죠.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이 대기업의 파이를 나누어주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제 실시, 해외사업 공동진출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71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5년간의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있었던 때를 기억하신다면 언제입니까.

사실 공직생활이라는 것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차 오일쇼크 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열흘 정도의 제고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물량 자체가 없었어요. 많은 고민들 끝에 동력자원부를 만들어 위기를 넘기는데 관여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에너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경제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동력자원부가 15년간 존재하다가 93년 상공자원부로 통합됐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을 다원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죠. 지금 노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다니시는 것도 모두 에너지자원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국가가 에너지자원 쪽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오랜 시간 몸담을 수 있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전에서는 연공서열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사장님의 '인간개발'에 대한 남다른 소신으로 보이는데요,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는 조직운영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정착되고 유능한 직원이 우대 받으며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질 때 회사는 일류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취임하면서 먼저 부장 승격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조직의 벽을 허물어 다양한 직무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교차보직을 시행했

습니다. 또한 연공서열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해 발탁승진제도를 도입하였고, 승격 및 보직이동 관련 인사자료의 공개 등 그간 주저하던 일들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죠. 인재의 양성 없이는 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듯이 '기업경영의 원천은 바로 사람'입니다. 한전은 전문인재 확보 및 양성을 위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의 도입을 통한 자율적인 교육체계 구축 등으로 미래의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구원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와 지방 자치아카데미 강연 등을 통해 참CEO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평소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지요.

한전에 와서 보니까 조직의 전통만큼이나 조직원들의 자부심도 크고 맨파워도 좋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IMF를 겪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과 배전 분야가 분할되면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였죠. 그래서 CEO로서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조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깨끗한 기업 활기찬 한전"을 모토로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외쳤죠. 그리고 깨끗한 기업을 만들어 즐겁게 일하고 싶은 한전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다행히 2만여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줘 많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CEO라는 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규합시키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가, 그리고 직원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전은 어떤 CEO가 와서 얼마나 잘 끌어 주느냐에 따라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조직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한전에서 발족한 대규모 사회봉사단이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나눔경영에 대해 소개 해주시죠.

한전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270개 봉사단, 8,10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직원의 40%에 해당하는 숫자로 연인원 62,0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활동기금 또한 직원 모금액과 회사지원을 통해 연간 2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전 봉사단은 업무에 맞게 직접 찾아가는 노력봉사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유보, 소외계층 현장순회 서비스, 저소득층 고효율기기 무상지원, 장애자 및 노인을 위한 무선 전원스위치 설치 등의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03년 이후 6천여 세대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빛 한줄기 나눔기금 조성'과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미아찾기 및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 봉사단 별로 '1봉사단 1농촌'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봉사단은 저를 비롯한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승진자 및 노사간부합동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한전의 봉사활동은 경영진이 직접 봉사에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장님께서서는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셔서 보기 좋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나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리산 종주도 하고 하는데, 한국 생산성본부 회장 시절부터는 다른 무엇보다 매년 1월 첫째 금요일 밤에는 강원도 태백으로 향합니다. 밤 기차를 타고 태백에 도착해 태백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7시쯤 되죠. 이 때 태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정말 장관입니다. 태백산을 다른 산과 달리 영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번씩 태백산에 오르고 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과 함께 태백산 등정을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의 이념에 적극 동참하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넘어 2006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 30년 동안 CEO 및 각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식 정보화사회를 맞아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연구원이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실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우리사회가 현재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요소 요소에 장 회장님 같은 분들이 인재양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앞으로 한전에서도 연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聞)

철과 함께 한 외길 기업 이익 사회에 나누는 일 앞장설 것

정문호 동국산업(주) 사장



우리가 앞으로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Globalization)가 되어야 하며, 창의력(Creativity)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Innovation)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며 변화의 주체는 개인으로 스스로가 창의적인 노력으로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개인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는 기업조직은 물론 나아가 가정과 사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5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경영을 함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에 바탕을 둔 합리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생존의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은 17년 동안 동국제강그룹 미국 현지법인장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선진기업들의 경영스타일이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다.

스승과 제자의 각별한 인연 멘토링

이제 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경험들을 우리 조직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파해 젊은 인재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운영하는 '젊은 시장경제지도자 양성위원회'의 멘토링제도에 참여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에 두세 번 멘토와 멘티로 관계를 맺은 두 명의 대학생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경영자로서의 가르침과 함께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하는 시간은 바쁜 경영 일선에서 잠시 벗어나 '기업이 사회로부터 이익을 창출했으면 그 이익을 사회에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펼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평소 독서와 메모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나는 멘토링을 통해 스승과 제자로서 각별한 인연을 맺은 대학생들에게 만날 때마다 경영과 리더십에 관한 책을 선물하고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쉽게 기업경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매일 신문에서 스크랩해 주제별로 분류해둔 스크랩북에서 좋은 내용을 추천해주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주머니 속의 메모장에 메모하는 습관을 보여준다.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그들에게 더 많은 배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나와 1년 넘게 멘토와 멘티로 만나고 있는 한 학생은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동국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했다. 물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동국산업이 어떤 회사이고 무엇이 강점인지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다. 이런 스스로의 기쁨과 노력의 결과인지 그 학생은 나를 만난 후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졌으며 멘토링제도의 보람을 이야기한다.

석유재벌 록 펠러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고 카네기도 미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기업의 부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기업은 나눔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이 나누는 사회주의적인 나눔은 오히려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가족 이상의 신뢰를 쌓는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려고 한다.

◆ 멘토가 멘티에게 ◆

1. 몸과 마음을 늘 건강하게 해라.
2.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갖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3. 꿈을 이룰 때는 정직하게 열정을 갖고 행해라.
4. 즐겁게 일해라. 즐겁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안다.
5.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지 늘 지켜볼 것이다.

철과 함께 한 외길 40년

철은 따뜻하고 유연하며 인간과 가장 친근한 소재이다. 철을 소재로 한 철강산업은 무겁고 실생활과 관계없는 산업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 산업,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며 인류문명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며 미래를 밝히는 산업이다. 동국산업은 이러한 철과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하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오직 한길만을 묵묵히 걸어 왔다.

최근 세계의 산업구조는 급속도로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기술집약적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후발 경쟁국들도 기술혁신과 미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과감한 기술개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위기와 함께 기회도 존재하게 마련이다. 협곡 냉연강판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동국산업은 1967년 동국제강그룹의 계열사로 출발하여 철강전문 생산회사로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미 1999년 코스닥에 등록하였고, 2001년 1월에는 그룹에서 분리하여 현재는 독립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계열사로는 2001년 분사해 대체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동국S&C, 특수강전문기업인 대원스틸(주), 2004년 1월 인적분할된 동국내화(주), 쓰레기매립장 메탄가스를 활용한 한려에너지개발, 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신안풍력발전(주), 고덕풍력발전(주)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에 동국산업의 성장엔진은 그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동국제강의 '올타리'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중견그룹의 모습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 독일 안드릿츠 준드빅사와 신규 설비도입을 체결한 동국산업

미래성장은 자동차용 소재와 대체에너지사업에 있다

특히 2005년은 신규 시설투자로 세계 최대 고탄소강 메이커로 도약하

고,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전 분야에 진출한 원년으로 먼저 지난해 7월 독일 안드릿츠 준드빅사와 연산 20만톤 규모의 18단 고탄소강 전용 광폭압연 설비 도입 계약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품질·다품종

을 무기로 고탄소강 제품의 주 수요산업인 세계 자동차부품업체들을 상대로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대체에너지사업을 위해 신안풍력발전을 설립하고 고덕풍력발전을 인수하여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하였다. 올해 10월부터 두 곳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5천 8백여 가구와 6천 5백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한편 두 곳의 풍력사업을 시공하게 될 동국S&C는 세계적인 '윈드 타워(WIND TOWER)' 공급메이커로서 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윈드 타워 제작 및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국산업은 이번 신규 시설투자로 2008년 이후에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산업은 특수강 전문기업으로서 내실을 다지고 미래청정 에너지사업인 풍력발전사업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다음 세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국산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개척정신으로 인류문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소재를 개발,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나누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人間**



▶ 동국산업 포항공장



정문호 사장 1939년 생 / 경북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동국제강(주) 무역부장 / 동국제강 사우디아라비아 지사장 / 동국제강그룹 美 현지법인 사장 / 駐美 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 한국강구조협의회 부회장 / 서울대 AMP 로타리클럽 부회장, 회장 / 전경련 국제경영원 이사



공부하는 총장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을 꿈꾸며 지난 10년 동안 학교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학생들에게 언니처럼 자상하게 다가가는 섬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항상 화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이 총장에게는 최장수 직선총장, CEO 총장, 혁신 총장, 춤추는 총장, 언니 총장, 섬기는 총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여기에도 '공부하는 총장'이란 면류관을 추가하고 싶다.

심화교육 차원에서 LMI리더십 과정 개설 총장 자신이 직접 참여해 수료

이 총장은 숙대를 리더십 대학으로 특성화하여 리더십개발원을 설립했다. 학생들은 리더십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교수와 교직원들이 이미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코비 리더십 과정을 이수했다. 이 총장 자신도 3박 4일간의 리더십과정을 성실히 수료했고 FT(facilitator) 자격증도 취득했다.

지난 해 12월 초 숙명여대에서 LMI리더십 수료식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30분씩 16주 동안 계속된 교육이 막을 내린 것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말에 시작한 교육이 가을을 지나 엄동설한의 문턱에서 막을 내리니 계절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지금까지 기업체 임원들을 주 대상으로 11회의 리더십 과정을 맡아 진행을 했는데 수료식을 할 때마다 늘 감동이 밀려왔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는 총장과 교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11명이 참석했다. 참가소감문을 읽어내려 갈 때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리더십을 전파하기 위해 아름다운 숙대 캠퍼스를 드나들면서 오히려 리더십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 숙대는 대학혁신의 성공 모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경숙 총장은 세계적인 명문여대로의 도약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낀 총장은 심화교육의 차원에서 LMI리더십 과정을 개설했다. 최소한 100명의 교수에게 LMI리더십 과정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현재 30명이 3개 팀으로 나누어 교육을 마쳤다.

그리고 총장 자신도 솔선수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를 한 것이다. 처음에 총장이 교육에 참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다. "바쁘신 총장님께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이니까 개강식 때 격려사나 해주시지요"라고 부탁을 했으나 참여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솔직히 총장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에 상당한 부담도 느꼈다. 처장이나 학장들도 부담이 되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이 분들은 학문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보직교수로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가. 기업체에 교육을 가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차별화가 되지만

대학에 가니까 비교우위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모든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우선 총장의 교육에 임하는 자세에 놀랐다. 16주 동안 2주만 빠지고 출석을 했다. 그 두 번도 APEC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으니 사실상 100% 출석을 한 셈이다. 대학총장이 얼마나 바쁜 지는 비서실에서 5분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이 총장은 발로 뛰는 리더가 아닌가.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었을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시간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어떤 주는 해외출장을 다녀와서 아침에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시내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교육장에 나타나 참가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겸손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 놀라워 한 번 교육에 50회가 넘는 박수가 나오는 학습분위기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 오는 성실한 학습자세에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LMI리더십의 특성은 예습을 하는데 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단원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토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내용을 2번 읽고 테이프를 6번 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철저히 지켰다. 숙제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제출할 때마다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또 토론 시간에는 11명의 참가자가 4개조로 나누어 얼마나 열띤 토론을 벌이는지 탄성이 절로 새어 나왔다. 각 조마다 메모를 해가면서 문제 하나 하나를 진지하게 검토하며 학교행정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그야말로 성실성, 진지함, 겸손, 섬김, 창의성이 넘치는 학습시간이었다.

숙대에는 칭찬과 격려와 섬김의 문화가 숨쉬고 있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Good News 시간에 참가자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축하하고 격려해 주든지 기쁨과 감동이 넘쳐 났다. 칭찬과 격려가 대학 문화로 정착을 했다. 그리고 총장과 교무위원들 간에 자유로우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대개 CEO가 교육에 참여하면 어색하고 딱딱할 수가 있는데 총장 스스로 교육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임한 덕택에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150분 동안의 교육시간에 최소한 50회가 넘는 박수가 나온다면 학습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 총장의 참가소감 발표는 감동 그 자체였다.

"교육기간 내내 기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리더십과 참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이렇게 쉽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진즉 알았더라면 하는 아



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제 리더십에 자신이 생겼다. 나 자신도 많이 변했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다른 교수님들도 많은 변화를 경험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모든 교수님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숙대의 꿈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

다른 참가자들도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발표했다. 숙대에는 정말 섬김의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 칭찬 리더십, 감성 리더십이 숨쉬고 있었다.

"부드러운 여성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2020년에 대한민국 리더의 10%는 숙명에서 나온다."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는 총장과 교무위원들의 진지하고 열정이 넘치는 자세를 보면서 숙대의 기적은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숙대의 꿈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4개월 동안 기대와 설렘으로 숙대를 드나들다 보니 어느덧 숙대 홍보대사가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나에게 훌륭한 리더와의 만남은 늘 가슴을 뛰게 만든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 <주식회사 장성군>이 훌륭한 리더에게 감동을 받아 나온 책이 아니던가. 이제 총장과 교수들에게 감동을 받았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숙명여대 혁신 이야기'를 집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평생학습시대에 숙대 사례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人間



산 씨앗을 뿌리는 마음

김형모 십대들의 쪽지 발행인



"18년만에 처음이다."

2002년 11월호 '십대들의 쪽지'를 받아 든 사람들은 평소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발견하고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쪽지를 발행하여 무료로 배부하면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 '십대들의 쪽지 지출내역'이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 남에게 구구절절 도움을 청한다는 것도 그렇고, 괜히 적자인 사용내역을 밝힌다는 것이 마치 후원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한 달 경비 중 90%가 적자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며 저의 생활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분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쪽지가 알려진 만큼 후원도 많지요?"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쪽지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분명 뭔가 남는 것이 있으니' 20년 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세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적어도 한 달이라도 쪽지 발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경비가 어떻게 충당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2002년 10월호에 지출한 경비 2,900만원 중 200만원 후원금을 제외하고 2,700만원은 자체적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내역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쪽지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청소년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지를 몰랐고, 다음은 16페이지의 작은 쪽지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20~30만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처음과 끝을 알았다면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60원의 시내버스비를 마련하는 일이 하루의 과제이자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중고등학생들의 문제

를 보며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제 자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절실하게 다가오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결국 그 절박한 고민이 단순하게 겁도 없이 '이대로 방치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도울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 하나로 쪽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 끝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못했을 일

먼저 그나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신학서적을 팔아서 첫 번째 쪽지 5000부를 만들고 난 후, 달마다 쪽지를 계속 만들기 위해 제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 보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하지 않는 이 일을 가난한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하시며 당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경비를 하시던 환갑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물어오실 때면 "이 일이 하늘 나라에 가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실 거예요. 부자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니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라고 호기롭게 대답하는 저에게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데……." 하시며 말끝을 흐리셨던 부모님께 저는 많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아홉 식구가 사는 집에는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쌀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한 끼 한 끼를 때우는 일도 벅찼던 나의 현실적인 형편과 처지는 분명 남에게 나눠줄 것이 없었고, 줄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어디서 돈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이나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처럼 평범한 기쁨이나 일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나의 필요나 가족의 필요가 아닌 쪽지 발행에 우선 투자되어야 했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마저도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남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돈이나 시간의 여유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절약하지 않으면 남을 향해 줄 수 있는 것 없어

꼭지 발행은 따로 손익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분명히 적자도 이만저만한 적자가 아닙니다. 매월 90%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상식적인 계획이나 경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기적이 22년째 계속되고 있는 데에는 우리의 삶의 섬세한 필요까지도 채우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신앙고백을 떠나서는 이 일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계산만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살면서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손에 당장 현금이 없어도 뭔가 남에게 먼저 주려고 하니까 줄 것이 생기고 나의 필요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채워주다 보면 그게 내게 당장은 돌아오는 이익도 없고 손해 같으나 결국은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다 채운 후 남을 돌아보겠다는 사람은 크게 욕심 내지 않는데도 평생을 단 한 순간도 남을 향해 진정한 관심을 주지 못하는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10년 째 호주에서 방학마다 진행되는 언어연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민들은 저에게 '적당히 대중 3주 배우고 말지 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며 답답해하십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운영하는 저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기회는 아이들의 인생에 평생 한 번 밖에 오지 않는 기회인 만큼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깊게, 가능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시작된 기도모임부터 저녁 10시 반에 끝나는 저녁 강연과 이어지는 개인상담까지 선생님들의 입술이 부르르고 몸무게가 줄고 아이들에게 고개를 흔들 만큼 집중을 하지만 그러고도 끝날 때가 되면 항상 아쉬움이 생깁니다. 마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키고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중독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은혜와 선의 순환

손익을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싶다는 선

한 욕심으로 일하다 보니 연수를 다녀온 아이들의 생활이 바뀐 것을 보고 "도대체 연수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애가 저렇게 바뀌죠?" 하며 물어오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주어진 일, 주어진 시간을 그냥 때우거나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전부를 투자해서 아이들과 움직일 때 아이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평범한 것 같은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특별함이 연수를 보내신 부모님들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연수 프로그램 진행에서 오는 수익금은 다시 꼭지 발행으로 투입되는 은혜와 선의 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30대인 사람들이 가끔 중고등학교 시절 읽을 거리가 귀했을 때 꼭지를 읽으며 힘을 얻고 때로는 상담편지를 보냈는데, 직접 쓴 답장으로 자신의 문제에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매월 꼭지를 만들어 발송하고 필요경비를 어떻게든 충당해야 하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다시 한 달이 무사히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꼭지를 준비하며 설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선의를 가지고 살아있는 씨앗을 뿌리고 싶어

세상에 내가 땀 흘려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은 씨앗의 열매를 먼저 거두려고 하면 선한 열매보다는 악한 열매를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선한 의도로 뿌린 씨앗이 일년 안에 어떤 결과나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그 선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그 열매를 보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공짜도 없지만 공짜로 사라지는 노력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무엇이든 끝장을 보겠다는 욕심에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힘을 잃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남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생명이 들어있는 산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밤에는……. **人間**



김형모 발행인 1956년 생 /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 美 미네소타신학대학원 졸업(상담심리학) / 20년간 매월 '십대들의 꼭지' 30만부를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 무료배부 / 포항제철, 현대·기아자동차 등 기업체 자녀교육 강연 / 서울대, 청주대 행정대학원, 명지대, 총신대학원 등 강의 / 경향신문, 국민일보, 월간 '새벗' 청소년 상담 및 자녀교육 연재 / 도서출판 꼭지 대표 / 자유기고가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신재철 로고시스템 회장**이 1월 1일부로 LG CNS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LG CNS측은 신재철 신임사장을 맞아 금년에 '고객 최우선 경영'을 목표로 고객의 사업성공을 지원하는 선제안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창호 에데스포츠타운 본부장**은 1월 1일부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재)에데스포츠타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정보통신부가 지난 21일 정보보호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공모한 제4회 정보보호대상(SA : Information Security Awards)에서 **우리은행(황영기 은행장)**이 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상인 우수상에 **교보문고(권경현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 **윤석금 응진그룹 회장**은 지난 12월 19일 중앙대 경영대학에서 제정한 '제13회 참경영인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윤 회장은 청와대 초청으로 경영 노하우와 실무경제에 관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또또 사랑, 경영'이란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창업 25년간의 이야기와 성공비결을 가감 없이 청와대 직원들에 전달하였다.

• 입체그림지도 **비틀맵(김은영 사장)**의 지도가 세계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amazon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현재 amazon에서 판매중인 제품은 서울 접지지도로서 이를 시작으로 점차 판매 제품군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 **유상옥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고려대 경영대학원 MBA교우회가 선정하는 '제1회 자랑스런 MBA 교우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제인 유학수 부사장과 함께 'MBA 부자(父子)가족상'을 수여 받았다

• **김상래 (주)성도GL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제12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중소기업부문 중소기업총리상(금상)을 수여 받았다.

• **장경작 호텔롯데 사장**은 지난 12월 12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열리는 '고대 경제인의 밤'행사에서 '고대 경제인 대상'을 수여 받았다.

•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 **서울시 SH공사(이철수 사장)**는 은평 뉴타운에 첨단 지하 쓰레기 수송관로 등을 갖춘 환경 플랜트를 건설키로 했으며, 2007년 말 은평 1지구 입주에 맞춰 준공할 계획이다.

• **기업은행(강권석 은행장)**은 KT와 업무제휴를 맺고 KT에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사 등 중소기업력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소(소장 전대성)를 열고 현지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난 6월 중국 심양에 영업점을 개설한 데 이어 일곱 번째 해외점포이며 내년 중에 영국 런던에도 해외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 **제일화재해상보험(김우항 대표이사 부회장)**은 산업은행과 기업사랑종합보험 및 재산종합보험의 판매에 관한 방카슈랑스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용보증기금(김규복 이사장)**에서 운영중인 매출채권보험이 지난 12월 13일 국내 처음으로 ISO 9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또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거래)로 발생하는 매매대금의 보험절차에 관한 '전자상거래 보험 시스템'이 특허를 취득하였다.

• **동서식품(이창환 대표이사)**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병커피 2종을 수입,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다.

•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6일 서강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수여하는 2005 자랑스런 서강MBA상을 수상하였다.

• **김용복 영동농장 회장**은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2005 재경강진군 향우회 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자랑스런 강진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 **21C 한중 교류협회 명예회장 박세직** 전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서울올림픽에 관한 저서 <하늘과 땅 동서가 하나로>가 중국어로 <나는 서울 올림픽을 이렇게 계획하였다>로 중국中信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출간되어 이를 기념으로 지난 12월 8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 **삼성석유화학(허태학 사장)**은 수출 10억불 탑을 수상하였다. 국내 테레프탈산(TPA) 업체 가운데서는 처음이며, 삼성석유화학은 지난 74년 창사 이래 30년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의 주원료인 고순도 PTA를 집중적으로 생산·판매, 국내외 폴리에스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 **오만식 제천정신병원 이사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지난 12월 29일 개원식을 가졌다.

- 아 래 -

· 위치 :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제천정신병원 옆)
충북 제천시 천남동 355-5 (문의 : 043-640-6000)

■ 신규회원



한승우 삼아테크노솔루션(주) 대표이사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번지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801호
 · 전 화 : 032-234-5700
 · 팩 스 : 032-234-5704
 · 업 종 : 전기기기
 · 주요생산품 : 에너지 관련기기
 · 추 천 인 : 김상래 (주)성도GL 대표이사

*추천해주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두상달 칠성산업(주)사장**의 자녀 하나양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정우철 (주)일삼 사장**의 장남 병주군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24일 호텔 신라 다이내스티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윤희진 다비육종 사장**의 차남 영규군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29일 호텔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무실이전 안내

- **한국블렌차드컨설팅(조천제 대표이사)**이 12월 1일부로 사무실을 도곡동 대림아크로텔로 이전하였습니다.
- 전화번호 : 02-566-3888(변동없음)
- 팩스번호 : 02-2187-5600
- 주 소 :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67-6 대림아크로텔 3210호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3그룹 (회장 황석희 / 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은 지난 12월 8일 에버그린MST 홍승국 사장의 사무실에서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 **인목회(회장 김정배 / ㈜수성 사장)**는 지난 12월 27일 송년모임을 가졌으며 김정배 회장의 자녀 결혼과 수성의 코스닥 상장을 자축하는 의미로 마련되어 송년 덕담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 **다락회(회장 전승표 / ㈜세스코 회장)**는 2006년 신년 하례회 겸 다락회 회장 이·취임 모임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1월 3일(화) 오후 6시30분
- 장 소 : 서울클럽(정충동 02-2238-6493)
- 초청연사 :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 **지중해클럽**은 지난 12월 21일 인 마이 메모리에서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 지자체소식

• 2006년 지방자치아카데미 개강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의 공직자와 각 단체의 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교양을 익혀 자기계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자치아카데미가 2006년도 첫 개강을 맞이한다. 1월 6일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개강을 시작으로 12일 '진도학당', 13일 '미항여수아카데미', 18일 '영양해·달아카데미' 등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강하게 된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12월 16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주재 하에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전라남도지방유치위원회, 여수시유치위원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계기관·단체 합동회의를 갖고 2012세계박람회 유치추진 기관과 단체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한 체제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2회 새해맞이 거제도 국제팽귤수영축제

경남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한해 가족들의 건강과 안영을 기원하며 겨울바다에서 외국인과 함께 즐기는 낭만의 축제인 제2회 거제도 국제팽귤수영축제를 1월 14일(토)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에서 내·외국인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바다수영 외에 체험행사로 맨손광어잡기와 부대행사인 꿀떡국과 복게란 나눔행사, 내·외국인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된다.

• 봉화군 신활력 사업 설명회 개최

경북 봉화군(군수 류인희)은 지난 12월 21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신활력사업 관계부서 공무원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파인토피아 봉화 신활력사업은 '춘양목과 송이'를 지역 특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약 95억여원이 투자되며 2005년에는 주민 참여와 사업의 추진기틀을 마련하고 2006년 이후에는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비틀맵	김은영 사장	(1월 1일)
정보실업	오성호 대표	(1월 3일)
신일금속센터(주)	김종엽 사장	(1월 8일)
(주)평안산업	곽창근 대표이사	(1월 9일)
(주)제니엘	박인주 사장	(1월 13일)
코리아홈쇼핑	박인규 대표이사	(1월 19일)
나경상사(주)	이승우 회장	(1월 23일)
(주)실버텍스	정만우 대표	(1월 21일)
첨미원(주)	윤동노 대표이사	(1월 25일)
신구종합건설(주)	김성규 회장	(1월 29일)
(주)광인기업	김용희회장	(1월 30일)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송년의 밤

"군장병들에게 문화와 지식을 선물합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은)은 지난 12월 26일(월) 서울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뜻깊은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 전원이 책 한 권씩을 들고 오도록 해 그 책들을 모아 육군 55사단에 병영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보문고(사장 권경현)가 도서 3000권을 기증하였으며 다음 도서관건립 예정인 장성 상무대에도 21세기북스(대표 김영곤)가 도서 500권, 김영사(사장 박은주)가 도서 500권을 기증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현재 前 총리(現 국민대 재단이사장), 조순 前 경제부총리,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한화갑 민주당 의원, 권경현 교보문고 사장, 이채욱 GE코리아 회장, 윤병철 FP협회 회장,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김영호 前 산자부 장관, 문용린 前 교육부 장관, 홍순영 前 외교통상부 장관, 정태익 前 러시아 대사, 박세직 前 올림픽조직위원장 등 인간개발연구원의 30주년이 되기까지 도움주신 각 분야의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민은행 5억원 성금 기탁, 교보문고 책 3천권 기증

지난 30년간 기업인, 공무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본원은 앞으로 그 노하우를 활용해 군대에서 도서관을 전진기지로 삼고 육군 55사단, 66사단을 시범사단으로 정하여 1999년부터 병영도서관 34곳을 건립해온 사랑의책나눔기운동본부와 함께 책과 문화가 있는 병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앞으로 이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과정 중 병사들의 금융교육에 기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기부금 5억원의 기탁증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제대 후에도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민은행(행장 강정원)은 이날 병영도서관건립을 위해 5억원을 본원에 기부하였다.



▶ 교보문고(사장 권경현)에서 55사단(사단장 김태교)에 도서 3000권을 기증하고 있다.



▶ 장민기 본원 회장이 송년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회자 방우정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품들이 참가자들에게 돌아갔다.



▶ 북미전통음악그룹 타기의 오프닝공연



▶ 아카펠라그룹 A-Five가 공연과 함께 참가자들



▶ 도서기증에 대한 감사공명으로 66사단 성재훈과 아카펠라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 많은 호응을 일궜던 마술공연이 있었다.



▶ 도서기증에 대한 감사공명으로 66사단 성재훈과 아카펠라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 많은 호응을 일궜던 마술공연이 있었다.

◆ 후원과 협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	소속	내용
강민지	월간 골프가이드 사장	신년탁상용달력 300개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자작그림 1점
권경현	(주)교보문고 사장	도서 15권(목욕 5세트)
권용욱	AG클리닉 원장	노화방지 3개월 무료이용권(400만원상당)
김상래	(주)성도GL 대표이사	롯데백화점 10만원 상품권 5매
김연호	(주)한길사 사장	로마인어아가기 전권 2세트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10만원 주유권 3매
김은영	비블랩 사장	신년탁상용달력 60개
김정철	(주)정림건축 명예회장	와인 3세트
박동서	지중해클럽 회장	고급양말 6세트
박찬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회장	동남아여행항공권 2매(230만원 상당)
손경식	홍익성경개원원 원장	서예 1점
신승희	우먼타임스(주) 사장	공기청정기 3대(150만원 상당)
오경근	베로니카 카스 코리아 아카데미 원장	가족사진촬영권 2매(120만원상당)
우덕성	센테일러 사장	이태리고급넥타이 1세트
유상욱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신년탁상용달력100개
유종하	(주)사이버MBA 회장	고급기념택타이 10개
윤건우	삼보주단 사장	골프웨어 상품권(50만원상당)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웅진 쿨렌 황동전기밥솥 3대(90만원 상당)
윤화진	센부테크놀로지 회장	도자기 1점
이병진	(주)뉴그린소프트 대표이사	방한 자켓 170벌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	미니리치 양복상품권(120만원상당)
이재욱	세람상호저축은행 회장	이천 임금표 쌀 80kg (25만원 상당)
장경작	(주)호텔롯데 사장	제주롯데호텔 2박3일 숙박권 2매(90만원 상당)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EPL 교육 상품권(220만원 상당)
장찬기	(북)해동재단 회장	신년달력 300개
정태익	러시아 대사	국립발레단 스페셜 신년갈라 공연티켓 6매(90만원 상당)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취소 1점
차중근	(주)유한양행 사장	생활용품선물세트 50개
최수부	광동제약(주) 회장	비타500 300개 / 광동 우향 청신환 5점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	삼성디지털카메라(50만원상당)
홍균의	한국네츄럴헤어스 사장	두피관리프로그램3개월무료이용권 3매(900만원 상당)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	에버그린 손목시계 20개
김병춘	(주)세원 회장	현금 100만원
김석기	관동실업(주) 회장	현금 30만원
김성귀	신구종합건설(주) 회장	현금 100만원
김성부	(주)제우전기 회장	현금 100만원
김영재	한신선전(주) 사장	현금 30만원
김우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부회장	현금 100만원
김인호	실리코리아 컴퍼니(유) 사장	현금 50만원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현금 100만원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현금 50만원
박성훈	(주)모간 사장	현금 50만원
변대규	(주)휴맥스 사장	현금 50만원
송언기	(주)태창플랜트 회장	현금 20만원
심대섭	명동의류 회장	현금 100만원
윤병철	한국FPSB 회장	현금 100만원
이영렬	(주)삼기 회장	현금 30만원
이종1그룹	회장 유상욱(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총무 송언기(주)태창플랜트 사장	현금 100만원
이종2그룹 (다락회)	회장 진순복(세스코) 회장 / 총무 우창욱 (동명인쇄) 사장	현금 100만원
이종3그룹	회장 황석희(법무법인 우현 상임고문) / 총무 최석태(창우커뮤니티 부회장)	현금 100만원
이종4그룹 (인목회)	회장 김정배(수성주) 사장 / 총무 한중덕(통인안전보관(주) 부사장)	현금 100만원
이채욱	GE코리아 회장	현금 100만원
허신형	전 농림부 장관	현금 20만원
홍승기	(주)유리스투자자문 회장	현금 30만원
권경현	(주)교보문고 사장	도서 3000권 기증
박은주	(주)김영사 사장	도서 500권
김영곤	21세기북스 대표이사	도서 500권



2006년! 인간개발연구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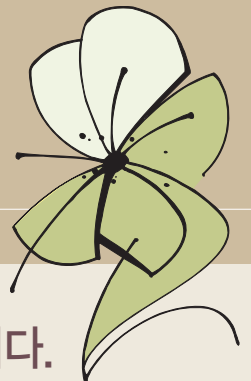
Club 風流 (가칭)

고달픈 현실 생활 속에서도 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의 지혜와 멋을 가리켜 風流라 합니다.

풍류는 각박한 세속적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인생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순수함에 잠겨보는 삶의 멋이요, 마음의 여유이며, 문화 그 이상입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기존의 CEO모임과 차별화 된 독특하고, 재미있고, 혁신적인 소모임 [Club풍류]를 창립합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임명	Club풍류(風流)
가입조건	인간개발연구원 소속 회원. 부부동반 가능. 삶을 멋스럽고 우아하게 즐길 준비가 되어있는 마음가짐
가입인원	동반 포함 70명
가입기간	2006년 1월 ~ 12월
클럽성격	교류의 장 + 배움의 장 + 사회봉사 + 심신수련
클럽운영	- 월 1회 회원들과 오프라인 정기 모임 - 년 2회 건강 테마 여행 - 연말 바자회 형식의 전시회 개최 : 수익금 사회환원
프로그램 구성	- 월 1회 문화체험 위주로 구성된 정규모임을 통해 진정한 풍류를 즐겨왔던 옛 선현들의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추구 ex) 재즈와인왈츠 로맨틱 데이트, 가을웰빙여행-황도염색과 밤따기, 심봤다! 약초산행 - 의식경영, 창업, 원예, 도예 등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통한 성취감 ex) 금술이 좋아지는 풍류법, 생명의 소중함 원예치료, 흙 속에 깃든 한국의 풍류 - 연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 수익금 사회에 공헌 ex) 작은 사랑 나눔 풍류 전시회 - 풍류티(농장)를 함께 가꾸며 지속적인 교류의 장 마련 - 다양한 문화를 호스트(저명인사)와 함께 직접 체험 - 인생의 진정한 벗(친구)을 만들 수 있는 자리
혜택	- Club풍류 기념패 증정 - Club풍류 활동모습을 담은 앨범 제작 - 생일 축하카드, 경조사 - 초청동반 1인 회원가 우대 (연2회) - 인간개발연구원 행사 참가시 회원가 우대 - 문화공연 1회 무료관람 (비정기, 선착순) - 인간개발연구원 월간지 better people better world와 도서선물(비정기) * 더 많은 감동적인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및 운영방법은 2006년 1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006년 1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클럽이 기다립니다.

LMI & HOTEL LOTTE

국내 최고의 호텔인 롯데호텔이 세계최고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전 임원이 참여한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교육이 2005년 7월 1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4일까지 장장 16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두가 2박 3일이면 교육을 마치는데 굳이 왜 16주간인가? 이는 자신의 목표를 체계화하고 습관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 중 정신없이 달려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삶과 일의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성찰로 인한 신선한 충격을 경험했다고 얘기한다. 이에 삶을 재설계하면서 이루어진 다양한 변화의 체험을 참가자들의 진솔한 소감을 통해 들어본다.

"EPL과정은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었다" "항상 하던 대로만 하면, 항상 얻었던 것밖에 얻을 수 없다"



이름도 생소한 EPL과정이 시작되었다. 그간의 타 교육 프로그램들과 EPL과정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나의 꿈 나의 소망', '자기 사명 선언서' 등을 작성하면서 평소 생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애매한 상태에 대해 '반성적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어렵פות한 생각이야 있었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하니 막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 점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마도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각이 명료하면 할 일이 명확해진다. Personal Leadership의 본질이 '좋은 태도와 습관의 계발'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인적 성숙도'와 '성숙된 품성'에 기초한다는 관점 또한 주요한 시각이었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리더십이 '술선수범'과 '자기 희생'의 토대 위에서 발휘될 수 있다는 견해와 전적으로 상통하는 이 내용 또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를 구체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한다.

개인적, 가정적으로 소박한 변화의 계기가 되어주었다.

가끔 아내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자료를 복사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용 있는 대화도 가능해지고 커뮤니케이션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습관화 목표 일일 점검표'를 함께 작성하여 서로 나쁜 습관을 고쳐보자고 했으며,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써 매일 아이들에게 한자를 한 두 페이지씩 써주며 한자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계기에서 비롯되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시도만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얻은 시각, 새로운 인식들,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체계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와 내공에 달려 있을 것이다.

박승완 총무담당 이사



퍼스널 리더십 교육은 삶의 6대 영역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하고 내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구체적인 개인 및 업무에 관한 주간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가면서 목표를 머리 속에서만 그려오던 예전과 달리, 이것을 글로 쓰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를 직원들과의 회의 때마다 주시시켜 왔다.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 월 목표를 달성하는 기회도 가졌다.

하버드대에서 발표한 "3% 이내의 성공적인 삶"에 관해서 가족 및 직원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의 전도사인 양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직원 결혼식에 주례를 요청 받았을 때도 3%의 성공적인 삶에 대해 조언을 해 주었고, 이들 신혼부부에게서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입사원 2명이 마케팅 부문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 향후 30년간 장기목표 수립을 과제로 주었고, 수립한 목표에 대해 서로 의논하면서 수정해 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그들의 Mentor로 여기는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매주 목요일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참여 인원 전원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발표함으로써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동료애를 느끼고 조직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작성한 사명선언서대로 호텔경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힘쓰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송용덕 마케팅 이사

■ LMI 소식

1. 숙명여자대학교 3기 EPL 과정 수료식
 - 일시 : 2005년 12월 2일(금)
 - 대상 : 이경숙 총장 및 학장, 처장 11명
 - 지도교수 : 인간개발연구원 양병무 원장
2. 한국노동연구원 EPL 과정 개강
 - 일시 : 2005년 12월 23일(금)
 - 대상 : 원장 및 임원, 연구원 8명
 - 지도교수 : 인간개발연구원 양병무 원장
3. 숙명여자대학교 4기 EPL과정 수료식
 - 일시 : 1월 5일 (목) / 대상 : 숙명여대 교수 10명
 - 지도교수 : 경쟁력평가원 정진호 원장
4. 제66기 EPL 퍼스널리더십과정 수료식
 - 일시 : 1월 7일(토) 오후 5시 / 대상 : 기업의 CEO 외 9명
 - 지도교수 : 안효열 코치(한국코치협회)
5. 제70기 EPL 퍼스널리더십과정 개강
 - 일시 : 1월 19일(목) / 대상 : 기업 CEO 및 임원 10명
 - 장소 : 한국엘엠아이 본사 교육장

■ 교육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2202-8700 / www.lmikorea.com

■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 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 (6인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암의 예방과 치료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제15회 양양군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12월 9일(금)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개강한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는 공직자와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혁신 및 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원과 양양군(군수 이진호)이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2005년 총 16회의 강연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사회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인재양성 등의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도 양양아카데미는 관계, 경제계, 학계, 연구기관의 경륜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양양군의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2월 9일 "암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제15회 강연을 해주신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 하지만 예방과 치료로 서서히 극복될 것

우리나라에서 4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암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70%까지 예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또 예방을

했는데도 안 되는 30%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대의학으로 그 중 반은 고칩니다. 그럼 70%를 예방하고, 예방이 안 되는 사람의 반을 고치면 85%가 되지요. 85%라는 것은 십중팔구라는 말입니다. 현재 암은 십중팔구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는 20년 단위로 치료성고가 좋아져서 2020년쯤이면 거의 다 극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15년만 버티면 그때는 암에 걸려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5년 후에 '기적의 약'이 나와서 다 고

박재갑 원장 1948년 생 / 서울대 의학과 졸업 / 서울대 의학 석·박사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원 / 서울대 의과대학 암연구소 및 암연구센터 소장 / 서울대 대학원 중앙생물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 (재)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회장 / 아세아대장항문학회 회장 / 대한암학회 이사장

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심증팔구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지키므로써 15년 후면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암을 간단한 약 하나로 고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가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남한의 인구가 4천 8백만으로 세계인구의 1%가 안 돼요. 그런데 암 발생 수나 사망자 수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략 1%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꽤 길고 또 평균수명이 긴데 비해서 그 동안 흡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1년에 1천 백만명의 암 환자가 생길 때 우리나라에는 11만명의 암 환자가 생기고, 세계적으로 약 620만명이 암으로 죽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 6만 5천명 정도가 암으로 죽습니다.

담배로 인한 암 사망자 하루 50명 넘어 끝나지 않는 진행형이라는데 심각성

이제 담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텐데, 제가 담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가 암센터 원장이 되고 나서 담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암 발생의 20%, 암 사망의 30%가 담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독약이고 마약이구나, 우리가 속고 있구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11만명의 암 환자가 생긴다면 이 중에 20%인 2만 2천명이 매년 담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6만 5천명이 사망하는데 이 중에서 30%는 담배 때문에 생긴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러면 1년에 1만 9천 5백명 정도이고 하루에 50명이 넘어요. 하루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담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95년 삼풍참사 때 죽은 사람이 502명이고, 대구지하철 참사로 죽은 사람이 198명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열흘에 한번씩 삼풍참사가 일어나고, 나흘에 한번씩 대구지하철참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풍참사나 대구지하철참사는 다시는 안 일어날 참사지만, 담배 때문에 일어나는 참사는 오늘도 50명 내일도 50명, 계속해서 일어나는 참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은 상상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암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뇌출혈, 심장마비를 다 합하면 1년에 4만 9천명이라는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초상집 다섯 곳 중 한 곳은 담배 때문에 초상나는 집이에요. 우리가 흔히 6대 암이라고 하면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말합니다. 제일 흔한 암이 위암인데, 위암은 줄고 있는데 반해 담배 때문에 폐암이 늘고 있고, 대장암이 남녀 할 것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있습니다. 여성에게서는 유방암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기를 잘 안 낳고, 아기 낳은 후에도 모유를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자극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고, 암은 어떻게 생

겼나, 왜 암이 생기나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이것이 엄마 자궁에 착상이 되면 아기가 뱃속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것을 담배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는 알지 못하는 성분이 4천종, 발암물질이 69종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다 흡수가 돼서 피를 타고 전신을 돌다가 난자한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독극물이예요. 요즘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나팔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거나 자궁외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성도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를 가지려면 최소한 결혼 10주 전에는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 정자를 만들면 유전부호가 바뀔 수 있거든요. 유전부호가 바뀌면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에 변화가 오고 세포가 조절 안 되면 암 발생 흡연으로 유전부호 바뀔 수 있어

그럼 암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포는 1초에 50만개가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세포를 만들고 보충했다가 떨어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포가 없어지면서도 자기모습을 유지하는 게 유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변화되면 세포가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고 이상하게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암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불어나는 속도와 떨어져나가는 속도가 맞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세포는 백혈구 뿐인데, 백혈구는 우리 몸의 피를 타고 다니다가 균이 들어오는데 가서 균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나머지 세포는 자기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암세포는 백혈구와 같이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즉, 대장암 세포가 간, 폐, 전신에 퍼지는 겁니다. 유방암의 암 덩어리가 작다고 떼어냈는데 5~6년 있다가 뼈, 폐에 다시 퍼져서 죽는 겁니다. 암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암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병이라고 하는데, 유전자에는 60억 개의 부호가 들어있어요. 이 부호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호 하나만 바뀌어도 이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것이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호를 바꿀 수 있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에는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담배 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담배연기를 그냥 빨아들여요. 그래서 암 사망률의 30%가 담배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432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하나 하나의 세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는 부위는 세포를 계속해서 빨리 만드는 곳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위나 대장 같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런 곳의 유전부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유전성 암입니다. 남자가 하루 동안 만들어 내는 정자 중에 받은 아버지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머니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배란을 하잖아요? 한번은 아버지유전자를 갖거나

어머니유전자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전할 때 보편 나쁜 유전질환이 지식한데 갈 확률이 1/2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유전성 대장암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는 정자가 임신을 시킬 확률이 1/2입니다. 그런데 보통 암은 쌍으로 된 유전자가 두 번 고장 날 때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는 게 2~30년 걸린다고 하면 4~50년 뒤에 암세포가 출현하는데 비해서, 유전성 암은 이상이 있는 정자나 난자가 수정란이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한쪽의 유전자가 다 고장 난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만 유전자 변화가 오면 암세포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하는 집안의 가계도를 보면 젊은 나이에 부모의 비슷한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는지 미국의 통계를 보면, 그 동안 변함없이 암 사망자의 30%가 담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암이 20년 전에는 35%였는데, 현재는 5%로 줄었습니다. 이는 식생활 개선보다도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오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은 금방 고치고 잘 안 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 바이러스 등으로 죽는 것이 미국은 15%에서 4%로 줄었는데, 우리는 아직 간암, 자궁암이 많아서 20%쯤 됩니다. 여성의 자궁암도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이 5%, 방사선이 3%, 술이 3%입니다. 술은 담배와 비교하면 암에 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술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암 치료 수준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었는데 제가 암 센터 원장이 되면서 처음 만들었어요. 1995년도 환자가 2000년까지 5년간 얼마나 살았나 하는 것인데, 대개 5년간 생존했다는 것은 암이 완치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환자 41%가 생존해있었습니다. 현재는 50%가 조금 넘어요. 미국은 최근 2000년까지 통계가 64%인데 언뜻 보면 우리보다 높지만 우리보다 치료 성적이 좋다고 보면 안 되고, 각 나라의 암 종류별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종류별로 비교해보면 위암은 미국에서 생존율이 23%인데 우리는 44%로 두 배 높습니다. 미국은 7~80년 전에는 위암이 흔했지만 지금은 위암 발생률이 적고 수술 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위암 걸려서 미국으로 치료하러 가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흔한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은 국내의 치료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폐암은 세계 공통으로 몇 십년간 엄청난 돈을 썼음에도 치료성적에 개선이 없습니다. 즉, 5년 생존율이 15% 미만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장암, 유방암은 미국의 성적이 좋은데 이것은 치료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워낙 흔한 암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빨리 발견되어서 그런 겁니다. 병기별, 진행별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전체 암의 1/3은 담배 안 피우고 간염백신 맞으면 애당초 암이 안 생깁니다. 또 다른 1/3은 조기진단이 되면 완치가 되는데, 이제는 암을 조기

진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중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3은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암이 생긴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연구로 해결해야 하는 속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제 흡연은 의존성정신질환이라는 질병으로 분류

여러분,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니코틴은 아편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 연기에는 나프탈렌 성분과 방사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부탄가스, 타르, 아세톤, 포름알데히드 등 해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니코틴에 중독되어서 니코틴을 흡수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산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마라톤을 못해요. 산에 올라가도 처져요, 고함이 안 나와요, 목소리가 갈라져요, 오후 되면 졸려요, 하품이 나요. 그리고 손등의 혈관이 정상인은 푸른색인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산소농도가 낮아져서 동맥피도 정맥피 마냥 검은색이 나요. 입술 또한 연탄을 씹어 먹은 사람 마냥 시커매요. 산소농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흡연은 의존성정신질환이라고 해서 이제는 질병부호가 붙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질병이 당뇨병, 고혈압이 아니라 흡연환자라는 겁니다. 담배 핀 환자의 폐를 보면 완전히 연탄처럼 시커멓습니다. 기관지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암이 기관지를 막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여겼지만 담배가 독약이고 마약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라도 막아야 합니다. 담배 피서 암에 걸린 사람의 세포를 검사했더니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70% 이상에서 유전 결함이 보이고,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45%, 대학교 때 시작하면 25%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치명적인 유전결함을 안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금연 아닌 판매금지로 건강 지키는 것이 바람직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높은 것은 저 같은 의사들의 책임이 큼니다. 남성 의사 흡연율이 38%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단체를 통해 담배추방운동에 앞장서도록 했고, 국회에도 건의를 해서 국회의사당을 금연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담뱃값 150원, 500원으로 올린 장본인이 바로 집니다. 담뱃값 올려서 쉽게 구입 못하게 하는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올린 돈을 전액 흡연자, 담배농가 등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담배는 독약이고, 마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폄여도 끊는 그 순간부터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 정부에 10~15년 후 담배판매금지 입법예고를 건의하고 그 해 8월부터 담배판매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앞담배 경작농가 보상해주고, 담배제조사들 대체 수입원 마련하고, 지방세는 대체세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현재 각계 저명인사들이 이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암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담배의 심각성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不朽의 명작 自畫像의 조각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사유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인격)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조건, 환경 그리고 운명까지 어떠한 것으로 만들고, 어떤 모양새를 갖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창조주는 인간을 창조주의 현상대로 만들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고 인간을 통해서 창조의 과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필자의 신앙이다.

2005년은 우리들 각자가 마음속에 그렸던 아름다운 꿈과 큰 계획들과는 걸맞지 않게 참으로 어려운 해였다.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야기한 인재(人災)의 사건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카트리나와 파키스탄을 강타한 대지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생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호남지역과 서해안 지역에 연이어 일어난 폭설과 폭한의 피해가 가뜩이나 어려웠던 2005년을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해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 시킨 채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한국을 일약 생명공학의 최고신신국의 지위에 올려놓고 노벨상 수상국가의 꿈을 부풀게 했던 배아줄기세포의 유전공학자 황우석 교수의 과학스캔들은 희망에 벅찼던 우리 국민들을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하게 하는 충격을 줬다. 이 세계적인 과학스캔들의 주인공인 황우석 교수나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도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사건으로 귀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경제예측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우리들의 희망적인 예측이 엉뚱하게 들어맞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의 희망과 예측이 들어맞기에는 너무나 변화가 극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미국의 경제시사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지난해 12월 26일자 호에서 지난해 최악의 세계 경제예측 10선으로 유가폭락(실제는 폭등), 달러화폭락(엔화, 유로화에 강제), 허리케인 전년보다 약화(극심, 최고의 자연재해), 다우지수 8,000포인트 마감(15,000포인트 마감) 등 예측이 아주 판관으로 달라진 사건으로 밝히고 있지만 새해에도 우리들의 아름답고 크게 세운 꿈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삶의 예측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어떻게 들어맞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작가이며 <Jonathan Livingston Seagull(갈매기의 꿈)>의 저자 Richard Bach도 "당신이 담대하게 꿈꿀 수 있는 것들을 꿈꾸어 보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 보라. 그리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 보라" 라고 했듯이 2006년 새해를 우리들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아름답고 알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 보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은 신년호 표지에 빌 게이츠(William H. Gates), 보노(Bono), 메린다 게이츠(Melinda Gates)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감동적으로 그려 놓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MS창업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메린다는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10년 이상 지켜온 사람들이고 보노는 록스타로 성공, 그의 정치적 재치를 활용하여 U2의 리더로서 개발도상국자들을 위한 막강한 대변자로 떠오른 별이다. 이 세 사람은 그들이 가진 막강한 부와 명성과 재능을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귀한 생명들을 구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여 베품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람들이다. 돈과 명성과 재능을 만들어내는데 최고의 정상일 뿐 아니라 베푸는 데도 그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타임지는 이 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고 있다.

빌 게이츠, 메린다, 그리고 보노가 베품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그들의 자화상을 질병으로 죽어 가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구원자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듯이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유감없이 활용해 불후의 명작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지난 30년간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절망적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PT(People Technology) 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PT로 우리의 민족사회에서는 물론 나아가 인류사회에 무엇인가 값지게 기여하기 위하여 PT전문가로서 자화상을 그려왔던 것이다. "높은데 뜻을 두고 꿈을 꾸라. 당신이 꿈꾸는 대로 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은 어느 날엔가는 당신이 꿈꾸는 사람이 되어집의 약속이다. 당신이 간직한 이상은 최후에 드러내 보일 당신의 진실한 모습을 예고하는 예언이다." <As A Man Thinketh(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의 저자 제임스 알렌의 말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 플로티노스(Plotinus, 205~270)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당신의 재능이 지닌 신성한 빛이 반짝일 때까지 당신의 자화상 조각을 다듬는 끌질을 중단하지 마시오."

마음과 혼, 뜻과 힘을 다해서 창조주를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최선의 자화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탤런트에서 발광하는 신의 섬광이 반짝일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人間**





과학과 인문학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이공계로 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고, 이공계지망생을 늘리기 위해 이공계졸업자들의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인문계에 갈 생각이 많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것도 아니다. 사실은 이공계에 앞서 인문계가 먼저 몰락해있는 것이다. 사회과학은 어떤가. 거기도 학생들은 흥미를 잃었다. 경제학과에도 이제는 사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어찌된 일인지 잘 성숙(成熟)하지 않는다. 학사와 박사가 많아도, 전반적으로 국민의 성숙도는 낮은 것 같다. 세상과 인생을 보는 시야가 좁고,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방종(放縱)을 조장하다보니 나라의 정신 풍토가 산성화되어 지성(知性)이 자라기 어렵게 된 것 같다. 곡식의 이삭이 껍서 가을이 되면 굽어야 하는데 찬바람이 나도 여전히 이삭은 뻗뻗한 것이다.

지성이 자라기에는 나라의 말이 너무나 거칠고 빈약하다. 모든 사상은 말을 매개로 생겨나고, 저장되고, 전달된다. 다른 데를 볼 것까지 없다. 길거리의 간판을 보면 안다. 거칠고 빈약한 한글의 바꾸니는 고수준의 사색과 사상을 담을 수 없고, 그 낮은 수준은 한글학자들의 소망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더욱 거칠고 빈약해지고 있다. 나는 언젠가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물리학자 유가와 히데끼(湯川秀樹)의 저서 <책 속의 세계>를 읽은 적이 있다. 그가 가장 많은 교훈을 받은 책을 소개한 저서인데, 1위가 <장자(莊子)>, 2위가 <까라마조프의 형제>, 3위가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이었다고 기억한다. 과학도 일종의 사상인데, 말의 바꾸니가 비어 있으면 높은 사상을 담아낼 수 없다. 인문학이 몰락한 곳에서 과학이 독주할 수는 없다. **人間**



우리나라는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국민의 지적(知的) 능력, 합리를 존중하는 전통, 근대화를 지향하는 국민의 열정이 있다. 거기다가 그 동안에 이룩한 경제 발전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학입국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력마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작금에 일어난 과학에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 나라에서 과학의 발전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첫째, 과학이 발전하기에는 윤리도덕의 수준이 너무 낮다. 둘째, 과학의 발전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발전과 무관하게 독주(獨走)할 수는 없다. 셋째, 과학의 발전은 국민의 총체적인 정신의 성숙도와 관련돼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과학발전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 하나가 다 빈약한 것이다.

과학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를테면 황우석 교수의 연구영역인 줄기세포의 연구자체의 윤리성 유무여부의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마디마디에서 표출된 많은 관련인물들의 윤리의식 내지 미의식(美意識)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연구팀의 윤리의식, 방송사의 윤리의식, 그리고 난자의 공급을 자청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미의식, 모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너무 거칠고 과학의 발전에는 도움을 줄

바퀴벌레 한마리가 내 가족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프렌치 키스”

한 마리만 보여도! 세스코에 신고하세요

바퀴벌레와 개미는 100여종의 병균을 옮기는 위험한 해충입니다
 식중독, 알레르기, 천식, 피부병...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퀴벌레는
 한 마리가 보이면 수천마리가 숨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충제로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스코에 신고하세요. 해충 전문가 세스코맨이 방문
 하여 바퀴, 개미, 쥐 등 해충의 서식처를 진단하고, 완전박멸해 드립니다.

초일류 건물부터 가정집까지, 이미 10만여 곳이 세스코존이 되었습니다
 OOEK, 인천국제공항, 63빌딩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건물도 세스코존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급호텔, 백화점, 병원, 대형빌딩, 식품공장, 음식점,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국내 100,000여 곳을 해충없는 청정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에서 박멸까지

완전박멸 불가시 100% 환불 1588-1119

전문가에 의한 해충박멸 서비스

